

동화 심사평*

김성범

동화장르에 걸맞게 판타지부터 우화, 옛이야기, 탐정, 마법, SF 등 다양한 형태의 글이 들어왔다. 하지만 5·18이란 소재에서는 자유롭지 못해 경직되고 획일화된 글이 많았기에 심사하는 시간이 즐겁지만은 않았다. 5·18문학상은 5월의 기록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문학적 성취를 요구한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에도 당선작이 될 만한 글들은 ‘아빠와 나의 행복한 방’ ‘오빠의 하모니카’ ‘무지개에서 나온 하얀빛’ ‘열두 살 삼촌’ ‘날아라, 에어조단’이었다. 다섯 편중에서 ‘열두 살 삼촌’ ‘날아라, 에어조단’ 두 편으로 압축하여 고민을 했다.

‘열두살의 삼촌’은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는 과정을 그린 장편동화다. 이 글의 미덕은 단편 못지않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내내 긴장감을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용의선상에 있는 고물을 수거하는 할아버지는 못쓰게 된 물건을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자폐적 경향을 띤 삼촌도 드디어 자전거를 타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이 5월 정신을 되살려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자연스러웠다.

그에 반해 ‘날아라, 에어조단’은 메이커 신발을 신고 싶어 하는 어린이를 그린 중편동화다. 탄탄한 문장과 감정의 절제가 돋보인 작품으로 당선작으로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었다. 그렇지만 제목처럼 메이커 운동화를 신고 싶어 하는 어린이의 모습으로 5월 문학상을 짊어지게 할 것인지, 자신이 없어 뒤로 밀어둘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응모된 글을 읽는 내내 든 생각이었다. 5월 문학은 이제 그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글이 더 많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당선작의 마지막 글귀처럼 5월의 현장은 <사건종료>시키고 꿈과 희망을 이야기함은 어떨까!